

'석전 스님 추모집'

고창 선운사 헌공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25일 불교대교육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석전 스님(1870~1948, 박한영)의 열반 60주기를 맞아 <석전 스님 추모자료집>을 헌공·배포한다.

이날 헌공될 자료집에는 석전 스님의 삶과 사상, 수행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추모다례제 봉행 후에는 역대 선운사 조사스님들의 유품과 유물을 봉안할 조사전 기공법회도 열린다.

이날 기공할 조사전은 경내 팔상전 인근에 건립된다. 조사전에는 검단 선사와 백파 선사, 석전 영호 스님을 비롯한 역대 선운사 조사스님들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봉안될 예정이다.

한편, 선운사는 4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간법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미륵사지에 정·교계 관심 집중

한승수 총리 방문·순회사진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익산 미륵사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익산 불교계의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원래 자리에 봉안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익산 미륵사지를 방문했다. 이어 12일과 13일에는 각각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모임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익산 미륵사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한수 익산시장과 전북도 문화재 관계자, 마한 백제 연구소를 비롯한 지역 사회계 인사들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전주박물관에 보관 전시중인 인근의 왕궁리 5층석탑 유물과 함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면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인력충원 및 전시실 확장과 함께 합군 및 합숙 시설, 방범 시스템 등을 갖춰 제대로 된 유물 보존이 가능해, 익산시와 지역불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지활동

에 나서고 있다.

지역 여론이 거세지자, 전북도청 문화재과 김승대 학예연구사는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지역 불자들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찬성하나 이번에 발견된 유물 중 사리만 큼은 미륵사지 석탑 복원 시 원래의 자리에 봉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륵사지를 복원할 때 현재의 유물전시관은 미륵사지 경내 밖으로 이전해 미륵사지의 전통적인 사찰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가 사리장엄을 상품화,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계획에는 꺾이지 않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3월 23일 '전라북도 백제문화유산 보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문 6명과 3개분과 추



김형오 국회의장(가운데)이 이한수 익산시장(왼쪽 두 번째) 등과 미륵사지석탑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진위원 26명(당연직 5명, 위촉직 21명)으로 구성했다. △1분과=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분과=익산역사문화유적 정비·복원 △3분과=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고문에 월주 스님(금산사 주지), 2분과 추진위원에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과 법린다, 전라북도 도청기획전시실에서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원광대박물관(4월 7~22일)과 미륵사지 유물전시관(28일~6월 7일), 익산시(10일~7월 10일)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승대 학예연구사는 "위원회는 1월 미륵사지석탑내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발굴으로 익산지역 백제문

화의 우수성이 재인식돼 민·관·학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사리장엄 가치규명 및 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해 4월 24일부터 5회 이상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발견된 유물순회사진전도 열린다. 전라북도 도청기획전시실에서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원광대박물관(4월 7~22일)과 미륵사지 유물전시관(28일~6월 7일), 익산시(10일~7월 10일)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강좌에 빠지다

사ाम련·육화포럼 등 강좌 '인기몰이'

광주지역의 대표적 불교단체인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장성오)는 3월 18일 사암연합회 불교회관 2층에서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를 대상으로 <금강경> 강좌를 개최했다.



3월 18일 광주사암연합회 불교회관에서 열린 <금강경> 강좌.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강좌는 4개월간 이어진다.

30여 명의 불교신행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성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불교신행단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강경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광주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경전을 통해 각 불교신행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부하고, 이야기 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금강경> 강좌는 4개월간 열리며, 광주지역사암연합회 불교신행단체들이 강사로 나선다.

광주불교단체를 대상으로 <금강경> 강좌를 개최했다.

실무자 모임인 육화포럼도 같은 날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한국불교와 국제구호사업'을 주제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김동훈 기획연구팀장을 강사로 대중강좌를 열었다.

김동훈 팀장은 "1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세계에서는 기아와 질병으로 700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해외구호사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브랜드화한 구호사업, 차별화된 재원 마련 등을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도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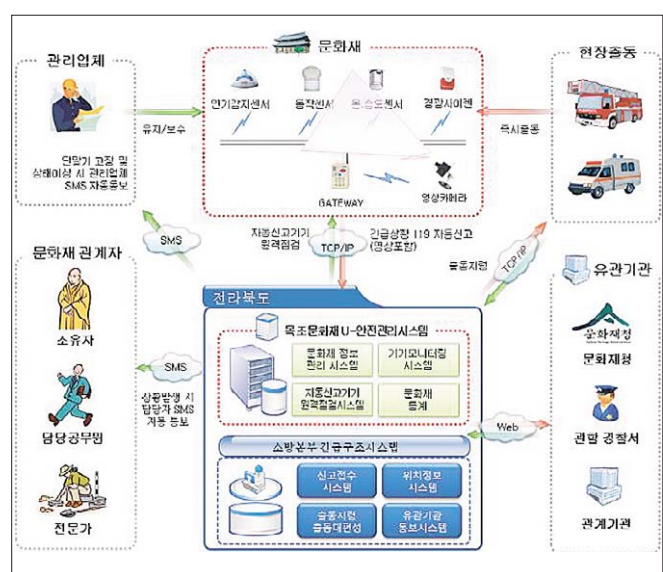
2009년도 u-city구축 기반조성 공모 사업대상 선정

전라북도 소재 목조문화재 관리가 체계화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09년도 u-City구축 기반조성 공모'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2000만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8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화재에 연기감지센서, 동작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평상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화재 및 무단침입 등의 상황 발생시에는 소방본부,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유사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비의 무손해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9개의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를 비롯한 총 220개소의 도 지정 목조문화재를 보유하고



전북도가 구축하고자 하는 u-안전관리시스템 구성도

있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방재 시스템은 문화재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개소당 3000만원 이상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소요되어 많은 기간과 예산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승려문 화재 사고에서 보았듯이 목조문화재는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한번 재해를 입게 되면 다시 원형을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저비용·고효율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목조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인의식 갖고 신행하자"

나주 심향사 '불자 열린 대화의 장' 마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3월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불자들의 열린 대화의 장'을 개최했다.



나주 심향사가 마련한 '불자 열린 대화의 장'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종량 박사(안양사 회복지역연구소), 안호자 교수(동신대), 박애순 신도회장 등 사찰 및 지역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신행단체별 주제론 발표와 자유토론을 펼쳤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의

주인은 불자들이다. 각 신행단체별로 사찰에서의 역할이 있으며,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신행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꽃등 만들기

광주 문민정사서

등잔객을 상대로 연꽃등도 만들고 실직가정도 돕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 문민정사(주지 법신)는 3월 22일 무등산 등산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비나눔 연꽃등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법신 스님은 "뜻 생명의 아픔을 함께 하는 부처님 자비를 나누고, 실직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등산을 찾은 시민 5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전액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돼 실직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시 살아나야 할 때!!

"업장소멸 범륜대 탄생"

지금 타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범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범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범륜대가 범당당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매일 정기법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

- 1.순금개금 95만원만 지불하고서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 2.명찰(개당 1500원)을 108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 3.범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보내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 한정으로 1차분을 마감합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재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이름명찰

특유의 기술 전통상감장터

○ 제품명: 천불봉안범륜대
 ○ 재질: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반직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범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을 하듯 한분 한분 권선하여 천명만 발원하여 보십시오.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범륜대입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4월 3일 ~ 4월 5일까지
2009년 한국 불교 박람회
(대구 엑스코)에 전시 됩니다.

양쪽에 천불이 봉안되는 범륜대입니다.